

강원도 민예품의 관광기념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of Folk-Craft Article for Souvenir  
in Kangwon-do

李美淑 (Lee, Mi-Suk) \*

孫在榮 (Son, Jae-Young)\*\*

논문접수일 : 97. 12

게재확정일 : 97. 12

< 목 차 >	
I 서론	IV 문제점 및 대책
II 민예품 및 관광 기념품에 관한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강원도 공예품 현황	

## I. 서론

남한의 북동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많은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교통,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제반 산업의 유치에 있어 타도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자체 실시 후,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천연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을 이룬다는 목표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사업에서 지역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소외된 채 외지의 대자본가가 개발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지출하는 관광소비는 지역내에서 승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은 관광객의 유입에 따

\*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강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른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만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쇼핑비는 관광객의 전체소비액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비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관광소비항목인 숙박비나 식음료비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각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관광기념품은 그지역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국의 모든 관광지에서 획일적인 관광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주도의 돌하루방이 강원도의 설악산 관광기념품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위에서 나타난 강원도 관광개발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역주민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한 관광사업개발에 목적을 두고, 그 방편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강원도만의 지역적 특성이나 상징이 잘 나타나고 강원도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각 지역의 전통민예품을 관광기념품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통민속공예품이나 관광기념품에 대한 여러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서, 그리고 여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나 통계자료를 이용한 문헌조사방법을 위주로 하여 강원도 전통민예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의 관광기념품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 보았다.

## II . 민예품 및 관광기념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민예품의 정의

민예품은 민속공예품의 약자로 민간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기능, 기술, 기법 또는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서 제조공정의 주요 부분이 수공업적 특징을 갖거나 또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풍속, 유적 등을 소재로 하는 전통적, 예술적 특징을 갖는다.(이규판, 1989)

그러나 민속공예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민예 또는 공예라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련된 정의를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산업부(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민간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공예기능에 의한 제품 및 향토성이 있는 창의적 개발제품을 민속공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예품 및 토산품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둘째,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공예품이란 기능인이나 숙련공이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공작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품은 생산지역으로부터 유래하는 전통적 예술적 특성, 가내수공업에의 수제외양적 특성, 장식적 가치를 지닌 사치성 물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풀이하고 있다. 셋째 민예품이란 실용성을 위주로 한 민중의 생활용구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만들어진 제

품은 대중생활에서의 쓸모가 위주가 되고 손에 의해서 제작되며 누구나 구입할 수 있을 만큼 값이 저렴한 것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이경성, 1983)

따라서 민속공예품의 특성은 민족고유의 정신문화적 소산물이며 지역특산 원재료의 사용 및 전승기법에 의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고, 수가공에 의한 수제품적 특성이 있다.

## 2. 민예품과 관광기념품

종래의 관광기념품은 관광객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거나 여행의 기념물로서 친지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광지에서 구입하는 민예품, 공예품 등의 토산품을 말하였으나 최근에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직접판매되는 일상용품과 같은 산업생산물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광기념품은 위와 같은 속성으로 인해 운송용이성과 저렴한 성, 다양성, 지역특성 내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기념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민예품이 관광기념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될 때 비로소 관광기념품이 되는 것이다. 즉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운반 및 휴대가 간편하고 기념이나 선물용품이 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예품이 관광기념품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기념품의 상품성과 민예품의 지역성을 잘 복합시켜야 한다.

## 3. 고문헌에 나타난 강원도 전통공예품

강원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통공예품도 주로 산지나 밭에서 생산되는 광물이나 식물 또는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생활용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로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가미되지 않은 소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전통공예품의 지역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표-1> 강원도 전통공예품의 지역별 분포

구 분	분 포
도기(陶器)	춘천, 원주, 양구, 철원, 강릉, 삼척
자기(磁器)	원주, 양구, 철원, 강릉
관석(莞席)	양양
삼 배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자 료 : 강원도, 지방 명·특산물의 발굴·보전·개발과 소득화방안, 1982, pp.18-35.)

### Ⅲ . 강원도 공예품 현황

1990년 현재 강원도 공예품 생산업체는 총48개 업체로 이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목공예, 칠공예, 도자공예, 석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석화공예 및 기타공예로 나누어 지역별 업체수 및 그들의 생산품을 조사해 보았다.

#### 1. 생산업체의 지역별 분포

전체 생산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목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전체 48개 업체 중 16개 업체를 나타냈고 이어 석공예 11개업체, 칠공예 7개 업체, 기타공예 5개업체, 금속공예 4개업체, 도자공예 3개업체, 석화공예·섬유공예 각각 1개업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별 업체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12개 업체로 제일 많은 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이어 춘천시 9개업체, 강릉시 5개업체, 인제군 4개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분야별로 나누어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목공예업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춘천시와 인제군으로 나타났고, 칠공예는 원주시, 도자공예도 원주시, 석공예는 춘천시, 강릉시, 철원군, 정성군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금속공예는 춘천시, 섬유·석화공예는 춘천시, 기타공예는 원주시에 많은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 2. 부문별 상품의 특징

가장 많은 업체가 분포해 있는 목공예분야의 상품은 주로 장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관광기념품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주로 장식품으로 속초시와 인제군에서 소나무의 관솔을 재료로 이용하여 생산되는 관솔목각제품과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곰상이 강원도의 관광기념품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생각된다. 그러나 바둑판과 탁자, 그리고 괴목과 같은 제품은 부피나 무게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관광기념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칠공예품은 원주시가 우리나라 최대의 옷 생산지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지역 특산물인 옷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장식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칠공예품도 농과 같은 제품은 부피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서는 문제가 있으나 다른 보석함이나 찻잔, 제기, 주병, 칠보단지 등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므로 강원도의 관광기념품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도자공예는 원주시와 홍천군에서 청자, 백자, 분청사기, 회청토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상품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석공예품은 춘천의 특산물인 연옥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팔지, 귀걸이, 보석함과 같은 장식품이나 철원의 현무암을 이용한 수반, 화분 등의 제품이 강원도의 관광기념품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2> 강원도 공예품 생산업체 및 생산품 현황

구분	지역명	업체수	생산품 현황
목공예	춘천시	3	탈, 연필꽃이, 탁자, 장승손잡이, 현판, 가래чат상, 등나무чат상, 민속옷, 구두솔
	원주시	2	벽걸이, 필통, 향아리, 현판, 탈, 목각인형, 컵받침, 꽃병
	강릉시	2	나무학, 바둑판, 괴목
	속초시	2	관솔불상, 관솔주병, 관솔나상
	평창군	1	전화받침대, 괴목, 탁자
	화천군	2	복주머니, 반달곰, 바둑판, 괴목
	양구군	1	바둑판, 탁자, 괴목
	인제군	3	관솔목각, 목각인형, 과기, 보관함, 목각상징물, 주방용품
	계	16	
칠공예	원주시	4	칠기보석함, 다기, 반상기, 제사용기, 소반, 주방용품, 칠기чат잔셀, 자개화병, 칠기화병, 고전чат잔셀, 칠기제품
	동해시	1	자개농, 화병
	횡성군	1	제기, 다기, 잔
	영월군	1	나전칠기, 소반, 보석함
	계	7	
도자공예	원주시	2	청자, 백자, 분청사기, 회청도기
	홍천군	1	청자, 백자
	계	3	
석공예	강릉시	2	동물상, 장식품, 수석받침
	태백시	1	석탄층화석, 수지화석, 액자
	춘천시	2	연옥제품(чат잔, 팔지, 반지, 비녀, 팬던트, 귀걸이, 노리개, 보석함)
	영월군	1	화병, 수반, 미석보석함, 동물상
	정선군	2	화병, 주병, 향로, 찻잔셀
	철원군	2	맷돌, 화분, 수반, 석등, 석탑, 하루방
	인제군	1	주병, 화병, 연적, 향아리, 돌북, 벼루
	계	11	
금속공예	춘천시	2	동주방용품, 목걸이, 뺏지, 메달
	원주시	1	칠보석함, 기념품, 장식품
	강릉시	1	신사입당상, 이울곡상 액자
	계	4	
섬유공예	춘천시	1	노리개, 사주보, 돌띠, 병풍, 가리개, 골침, 상보
	계	1	
석화공예	춘천시	1	석화병풍, 석화액자
	계	1	
기타공예	원주시	3	가족공예, 박제공예, 신부용부케
	횡성군	1	화장술
	양양군	1	화장술
	계	5	

(자료 : 강원도, 향토특산품, 1990, pp.68-70)

금속공예품은 춘천의 동주방용품이나 뺏지, 목걸이, 열쇠고리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관광기념품으로의 가치가 없으나 강릉시의 신사임당상이나 이울곡상은 지역의 유명인물을 상품화해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섬유공예품으로는 노리개, 자수꿀무셀, 자수제품 등이 있고, 석화공예로 석화병풍과 석화액자, 그리고 기타공예품으로 가죽공예, 박제공예, 신부용부케, 화장술 등이 있으나 강원도만의 특색을 담고 있는 제품이 없다.

전체적으로 강원도 공예품의 특징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다. 특히 춘천시의 연옥이나 원주시의 옷칠, 철원군의 현무암, 인제군이나 속초시의 관솔은 다른지역에서 보기드문 강원도만의 특산재료이지만 강원도의 각 지역을 대표할 상징물이 없거나 기술부족, 아이디어 부족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특징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 3.사업체 현황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규모를 조사한 1989년의 자료를 보면 업체의 규모는 1988년 현재 총자산과 연간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83.4%이고, 고용인원이 10명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87.5%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체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춘천지점, 1989)

이같은 영세성으로 인해 이들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은 적기에 생산자금의 자기조달의 애로와, 또한 담보부족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기피등으로 신규차입이 어려운 점 이외에, 제품에 대한 수요변화와 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신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금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업체간의 과당경쟁, 기능인력 확보 등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의 판매실적을 보면 총매출의 76%가 국내매출(이중 42%는 도내에서, 34%는 타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24%는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공예품사업 지원기관 및 지원책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 그리고 내무부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손재영, 1995)

#### (1)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는 관광상품개발의 일환으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우량 쇼핑상품을 발굴·육성하여 외화수입을 증대한다는 목표하에 전국 지역별 특화상품을 선정하며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기술지원 및 관촉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유망한 관련상품 및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1984)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하여 전통민속공예에 대한 기능을 가진 장인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2)농림수산부

196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실시되었던 농림수산부의 “부업단지사업” 내에는 민속공예품을 생산하는 특산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자금 및 기술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 (3)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는 공예산업의 육성과 공예품 전문 생산업체의 지정, 공예품의 상품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민속공예산업의 육성지원을 명시하고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수공예품의 개발촉진과 수출상품화 유도, 신제품 개발의욕의 고취를 위해 해마다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경진대회에 입상한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로 지정이 되고 지정받은 업체는 자금지원, 경영·기술·디자인 지도 및 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4)내무부

각 시·군의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해 육성기금을 설치하거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 IV . 문제점 및 대책

### 1.문제점

강원도의 민예품을 관광기념품화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III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크게 상품의 문제, 생산업체의 문제 그리고 관련지원기관 및 지원책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1)상품의 문제점

강원도 공예품의 전체적인 특징은 강원도만의 특산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재료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공예품의 재료는 나무, 돌, 금속, 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만드는 제품은 전문기술이나 기능 및 아이디어 부재와 지역상징물의 부재로 인해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 고유의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비슷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 등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제품이 너무 크거나 조잡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며, 포장재료나 포장방법도 관광객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아 관광객이 관광기념품으로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특정상품이 개발되면 이를 모방한 유사제품들이 쏟아짐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 (2)사업체의 문제점

관광기념품 시장은 시장수요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을 투입할 수 없어서 보통 작은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업체는 영세하고, 이에따라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의 적기조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를 통한 대량제품의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기능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상품을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고, 제품에 대한 수요변화와 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신제품의 개발이나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외에 임금상승에 따른 채산성의 악화와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예품의 판매증진을 위한 특정판매소의 설치나 광고·선전 등이 행해지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했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 (3)지원기관 및 지원책의 문제점

공예품의 생산에 대한 지원기관과 이들기관의 지원책은 앞에서 문화체육부의 관광상품개발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공예기능을 보유한 기능인력에 대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 농림수산부의 특산단지 지원사업,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공예품 개발촉진과 수출상품화 유도, 그리고 신제품 개발의욕의 고취를 위해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의 개최에 의한 자금지원 및 경영·기술·디자인 지도 및 연수, 그리고 내무부의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한 육성기금의 설치나 조례제정 등과 이외에도 많은 관련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기관에서 여러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육성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여러기관에서 갖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대책

민예품의 관광기념품화에서 나타난 앞의 세가지 문제점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코자하는 대책은 아래와 같다.



### (1) 상품에 대한 대책

강원도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선행해야 하는 작업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조사해 선호하는 제품, 구입장소, 구입가격대, 소비액 등을 파악해 관광기념품의 생산에 반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어 각 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속이나 전설을 형상한 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재료를 이용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므로써 강원도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별 특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나 기술·상징물을 통해 지역특화 상품을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보조·장려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관광민예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거나, 관람토록 함으로서 관광객이 직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품의 디자인, 색상, 포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특정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의 범람을 막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객이 신뢰하면서 민예품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에 대한 특허권 인정이나 상표 등록 또는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한 후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고 품질인증이 된 상품에는 품질인증 표시를 부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공예품 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공예품 관련 학과의 설치가 필요하다.

### (2) 사업체의 영세성에 대한 대책

앞의 문제점에서 보았듯이 관광기념품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통 작은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자금융자나 지원등의 시책이 필요하고 사업자들이 이와같은 융자나 지원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시장 수요변화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기술개발을 위한 협조,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시설의 공동운동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관광민예단지로 지정하고 관련업체들이 이곳에 입주할 때는 각종세제와 자금지원상의 혜택을 주어 관광민예단지를 하나의 관광루트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인력을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민예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공동판매소의 설치나 공동선전책자의 제작·배포가 필요하다.

### (3) 지원기관 및 지원책의 분산에 대한 대책

관광기념품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를 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같은 총괄기구의 설치를 통하

여 관광객에 관한 조사, 상품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지정, 공동선전, 홍보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 결 론

강원도 민속공예품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이들의 생산하는 상품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관련기관과 지원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결과를 종합한 것이 <표-3>이다.

<표-3>민속공예품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구분	문제점	대책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성의 부족</li> <li>*상품의 조잡성</li> <li>*부피가 너무 크고 고가임</li> <li>*디자인, 색상, 포장</li> <li>*유사품의 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의 소비성향 조사</li> <li>*각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발굴</li> <li>*지역특화상품을 지정하여 특화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li> <li>*공예품 제작과정의 시연이나 관광객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li> <li>*실업계나 전문대학에 공예품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공예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등록, 품질인증제 실시</li> </ul>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세성으로 인해 자금조달문제, 기계화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기술의 부족, 정보부족, 광고·선전의 부족 등의 문제 초래</li> <li>*임금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li> <li>*업체간의 과당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적인 자금지원이나 용자</li> <li>*자금지원이나 용자에 대한 적극적이 홍보</li> <li>*관광민예단지를 지정하여 입주업체들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고가장비의 공동구매 및 공동이용 모색</li> <li>*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선전</li> <li>*공공기관의 전문인력 양성</li> </ul>
지원기관 및 지원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부(관광쇼핑상품개발, 공예기능 보유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부(특산단지 지원사업),통상산업부(전국공예품 경진대회)로 분산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이나 정책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li> </ul>

강원도 공예품의 특징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광물 또는 식물을 이용하여 주로 장식품이나 일상생활용품만을 만들뿐 강원도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부재로 인해 강원도만의 관광기념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재료 중 강원도만의 또는 강원도의 특산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에는 춘천의 연옥, 원주의 옷칠, 속초·인제의 관솔, 철원군의 현무암 등이 있다.

관광기념품 시장은 수요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이나 시설을 투입할 수 없어 생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체를 띄우고 있다. 이같은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은 적기에 자본의 조달이 어렵고, 자본의 부족으로 기능인력의 양성이나 기술개발 등에 있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 그리고 내무부가 있는데 이들의 그들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첫째, 상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조사하여 관광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 각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선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상징물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도록 한다. 지역특화상품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공예품의 제작과정 시연이나 관광객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공예품에 대한 특허권제도, 상표등록, 품질인증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체의 영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극적인 자금지원이나 용자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민예단지를 지정하여 입주업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고가장비를 공동 이용하게 한다든지, 기술개발을 위한 협조, 그리고 더 나아가 단지 전체를 관광상품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 및 지원책의 분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이나 시책의 통합화를 통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원도, “강원의 특산제품”, 1992, pp.11-18.
- 강원도, “지방 명·특산물의 발굴·보전·개발과 소득화 방안”, 1982, pp.18-35.
- 강원도, “향토특산품”, 1990, pp.68-70.
- 손재영,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연구』, 제19집, 강원대학교 경영연구소, 1995, pp.186-188.
- 이경성, 『공예개론』, 수학사, 1983, pp.9-11
- 이규관, “우리나라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시책 방향에 관한 연구”, 1989, p.6.
- 한국관광공사, “94한국방문의 해 세부사업 추진계획”, 1992, p.142.
- 한국은행 강릉지점, “영동·태백지역 관광기념품 실태조사 결과”, 1988, pp.21-76.
- 한국은행 춘천지점, “강원영서지역 공예품 생산업체 실태조사 결과”, 1989, pp.4-7.